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주간 시작

‘평화로 세계를 연결하자’ 주제, 참부모님 평화사상과 생애업적 조명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주간’이 시작됐다. 2012년 천력 7월 17일(양 9.3) 새벽 1시 54분, 인류의 구세주·재림메시아·참부모·만왕의 왕이신 문선명 천지인참부모께서는 지상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천상에 오르셨다.

참아버님의 승리적 생애와 천주성화, 새 역사의 시작

참아버님께서는 2010년에 천력시대를 발표하신 이래 성화를 예비하시듯이 혹독하다 할 만큼 성체에 엄청난 무리를 가하시며 섭리의 노정을 걸으셨다. 세계순회 강연을 10여 차례나 하시고 매일 혼독회를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섭리를 식구들에게 일일이 교육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시기 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에서 ‘복귀섭리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늘의 성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완결·완료하셨음을 밝히셨다. 성화 이후 13일 동안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분향소가 차려져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으며, 각국의 정상들이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식은 2012년 천력 7월 29일(양 9.15) 오전 10시, 전 세계 전·현직 국가수반 및 평화지도자 3백여 명을 비롯해 국내외 귀빈, 통일가 공직자와 식구 3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심평화월드센터와 청평 성지 전역에서 거행되었다.

국내외 귀빈들은 ‘문 총재께서는 한평생 인류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많은 업적을 이 땅에 남기셨다. 문 총재께서는 초종교운동의 승리자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셨다. 그 숭고한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천주성화식은 참아버님의 말씀과 사랑과 업적을 되돌아보고, 그 삶과 가르침을 따라 천일국을 정착시킬 것을 결의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었다. 전 세계 식구들은 ‘사랑합니다.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뜻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라며 눈물로 다짐하고 결의했다.

참어머님께서는 성화식 3일 후인 천력 8월 2일(양 9.17) 삼일예배 겸 세계지도자특별집회에 참석하시어 ‘중단 없는 전진’을 촉구하셨다. 특히 참어머님께서는 참부모님의 전통 전승, 축복가정 이상 완성, 종족메시아의 사명과 책임 완수, 심정문화공동체 실현 등 향후 통일가의 갈 길을 제시하셨다.

한편, 참부모님께서는 새 시대와 새 역사의 시작인 기원절을 선포하시



어 실제 천일국 완성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출발하셨으며, 천일국 헌법을 제정·반포하시고,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등 천일국 3대 경전을 편찬하셨다.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적 섭리를 경륜해나가기 위한 천일국의 외적 조직을 정비하셨다. 천일국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천정원, 천의

원, 천법원, 천재원, 천공원 등 5원을 개원하셨다. 또한 세계본부를 천정궁에 두시고 언어와 문화권을 중심으로 대륙을 세분화하셨으며 각 대륙에 특명총사를 파견하셨다. 더불어 섭리국가와 전략국가를 두시어 천일국 실체화를 위한 통일가의 역량을 집중하게 하셨다.

(2면에 계속)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사업 현황

	천력 6.17~7.13(양.8.1~26)	천력 6.17~7.13(양.8.1~26)	천력7월15일(양.8.28)	천력7월16일(양.8.29)	천력7월17일(양.8.30)	천력7월18일(양.8.31)
8월	2015 전국 성화캠프 (8.7~9) 세계잼버리 수련장 한국협회	2015 세계기후환경포럼 한국 프레스센터 15:00 세계일보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인터컨티넨탈호텔 10:00 선학평화상위원회	청년학생세계총회 참부모님 특별집회 천주청평수련원 17:00 W-CARP	천주성화 3주년 기념 경배식 천정궁 07:00 기념식 청심평화월드센터 09:00 문화공연 청심평화월드센터 10:30 정상오찬 천정궁 12:30	축승회 천정궁 09:30
	종교지도자 친선 축구대회 (8.22) 하남 종합운동장 09:00 한국종교협의회	PEACE ROAD 2015 세계 120개국 종주 완료 기념식 8.27 11:00 광화문 중앙광장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World Summit 2015 선학평화상 수상자 강연 인터컨티넨탈호텔 17:00			
	국제학술대회 (8.24) 선문대학교 10:00 선문대학교 문선명 연구원 통일사상연구원, 세계평화교수협의회	PEACE ROAD 2015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심포지엄 8.27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사랑나눔축제/성지순례 9월 중 전국 교회 및 주요성지 한국협회					
	꿈씨음악회 (8.19) KT 체임버홀 19:30 자원봉사 애원	World Summit 2015 8.27~31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세계 UPF				
	무도축전 (8.25)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세계평화무도연합	청년학생세계총회 8.27~30 천주청평수련원 World CARP, 세계본부				
		천지인참부모 생애업적 전시회 8.27~30 청심평화월드센터, 천정궁 일본협회, 천정궁박물관				
	PEACE ROAD 세계대장정 5.29~8.30 전세계 한국 UPF,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9월	천력7월19일(양.9.1)	천력7월20~21일 (양.9.2~3)	천력7월22일(양.9.4)	천력7.23~24(양.9.5~6)	천력7월25일~8월18일(양.9.7~30)	
	참부모경 출판기념식 천주청평수련원 10:00 역사편찬위원회	천일국 지도자 특별교육 9.2~4 천주청평수련원 세계본부	천일국 지도자 특별교육 폐회식	교회성장컨퍼런스 9.4~6 청평수련원 친화관B 한국협회	성지순례 9.4~6 전국성지 한국협회	천일국 최고위원회 회의 9.7~8 천정궁 천일국 최고위원회
기타	가정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8.31~9.1 19:00 천주청평수련원 세계본부, 한국협회, 일본협회	통일공감포럼 7.3~30 지역별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제1회 피스로드 심포지엄 8.5 10:00 국회의사당 회 의실	PEACE ROAD 탐방 5.27~6.3 미국 라스베가스	제1회 통일사진 공모전 8.21~9.11 세계일보 유니홀 세계평화청년연합	CARP 여수 특별수련 6.18~7.24 여수 청해연수원
			대학생 PEACE ROAD 세미나 7.7~11 중구 백두산 세계평화터널재단	PEACE ROAD 포럼 6.17 07:00 63 컨벤션 센터 세계평화터널재단	2015 가화만사성 캠페인 7.18, 7.25, 8.2 구리, 여수, 용산 한국청소년수련운동본부	우리노래 창작 경연대회 8.22 한국카프센터
						CARP 희망 여행단 8.12~16 카프센터~여수 한국카프

‘평화로 세계를 연결하자’ 주제, 참부모님 사상과 생애업적 조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의 창시자이신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이 오는 천력 7월 17일(양 8.30) 오전 9시 경기도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해외 전·현직 국가수반 및 국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해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될 예정이다. 가정연합을 필두로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한국대학원리연구회, 세계평화청년연합, 한국종교협의회, 원모평애재단, 선학평화상위원회, 한국다문화평화연합, 세계일보, 선문대학교 등 20여 개의 기관과 단체들은 문선명 천지인참부모님을 추모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주성화 3주년에는 ‘평화로 세상을 연결하자’는 주제로 국경, 인종, 문화, 종교, 이념의 벽을 넘어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및 수상자 특별강연’, ‘World Summit 2015’ 및 ‘Peace Road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천지인참부모 생애업적전시회’, ‘참부모경 출판기념회’,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며 국가와 지역별로도 다양한 나눔·봉사·실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주간에는 문선명 총재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특히 일본을 중심한 선교 활동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한 평화활동의 업적과 발자취를 집중 조명하게 된다.

한국 가정연합은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평화를 품은 거인, 문선명 선생의 삶은 사랑이었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천주성화 3주년 사랑나눔축제’를 전국 231곳에서 개최하며 특별히 4

대 권역에서는 규모 있는 심령대부흥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사랑나눔축제는 참부모님께서 펼쳐 오신 사랑과 평화의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성화절을 기리는 범국민적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새식구 환영축제와 성지순례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진행된다.

한편, ‘2015 전국성화캠프’가 참부모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지난 천력 6월 23일부터 25일까지(양 8.7~9) ‘성화! 평화와 통일의 등불이 되어라.’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5천여 명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에서 개최됐다.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성화학생들에게 참부모님의 평화사상과 비전을 심어주고 심정문화를 공유하며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세계 실현을 염원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이다. 선학평화상은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인 평화운동을 필생의 사업으로 전 생애를 바치신 문 총재님의 생애업적을 기리며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선학평화상위원회는 ‘21세기에 들어 기후변화와 식량위기로 인한 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전 지구적 위기로 커져 인류 생존자체를 위협할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문제 해결에 주목해 제1회 선학평화상 공동수상자로 아노테 통(Anote Tong, 63세) 키리바시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M. Vijay Gupta, 76세) 박사를 선정했다.🌍

천주성화 3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 생애업적 전시회 개관식

참부모님 행사 주관 및 축도, 전 세계 지도자 200여 명 참석



‘천지인참부모 생애업적 전시회 개관식’ 참부모님 축도
 오늘 이날은 성화 3주기를 앞두고 일본선교 57주년과 일본협회 창립 56주년을 기념하며 참부모님 생애업적 전시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원수의 나라 일본을 섭리의 중심에 세우시고자 57년간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노정을 걸으시며 오늘의 일본통일교회가 있기까지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보여주신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일본 국민이 되어 섭리역사 앞에 불충했던 모든 것을 탕감하고 섭리역사의 본류의 중심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부모님의 소원이며 천지인참부모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 통일의 세계를 약속하고 이룰 수 있는 축복가정들을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전시된 물건들을 보면서 그동안 하늘이 인류를 품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셨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노정을 따라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이 천일국을 창건하는 데 있어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최선을 다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더욱더 크게 다짐하고 실천궁행하여 당신의 자랑스러운 효자의 상, 충신의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이 시대를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축복가정으로 모두를 품어주시옵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눠주면서 70억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천지인참부모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삶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2세·3세가 될 수 있도록 품어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모든 물건들이, 기쁨으로 저희 앞에 당신 앞에 위로가 되시옵소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주!🙏

70억 인류를 품는 모습 되길 축원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님 생애 업적 전시회 개관식’이 천력 7월 14일(양 8.27) 오후 3시 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청심평화월드센터 1층 로비에서 거행됐다.

이날 참어머님께서는 축도를 통해 ‘하늘이 인류를 품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셨는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어 부모님이 보여주신 노정을 따라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이 천일국을 창건하는 데 있어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최선을 다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전시회의 의미를 더욱 높이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이날 행사에는 문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문훈숙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박인섭 세계부회장, 안준석 세계부회장, 유경석 한국회장, 송용천 일본 총회장을 비롯하여 대륙 회장, 섭리기관 지도자, 제1기 글로벌 탐견 수련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쿠노 에이치 일본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관식은 참어머님의 입장과 함께 참어머님 축도,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후 청심평화월드센터 2층에 마련된 전시장으로 이동하신 참어머님께서는 꽃다발을 봉정 받으신 후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전시회 코스를 돌며 자세히 관람하셨다.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전시패널 앞쪽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일본에서의 참어머님 강연 영상물을 다 관람하시고 이동하시기도 했다.

이후 참어머님께서는 천정궁 박물관으로 이동하시어 천정궁 박물관 전시관 앞에서 주요 지도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신 후 관람을 하셨다.

참부모님의 일본섭리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

참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개관한 천지인참부모님 생애 업적 전시회는 ‘일본섭리와 참부모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천력 7월 14일부터 7월 18일(8.27~8.31)까지 5일간 청심평화월드센터와 천정궁박물관에서 열리게 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협회의 주도로 준비된 이번 전시회는 참부모님의 승리적 생애 발자취 중 일본을 중

심으로 전개됐던 섭리와 이에 동참했던 일본식구들의 신앙노정을 소개하여 Vision 2020의 승리를 위한 교육과 출발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의 전시는 참아버님의 유학시절부터 최근 참어머님을 중심한 섭리까지를 연대별로 9개 섹션으로 구분하고 ‘천지인참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과 간증 & 포토존’을 추가하여 총 10개 섹션으로 2층 복도에 패널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섹션의 한 가운데에는 참부모님의 각 시대별 동영상 상영하며 생동감을 더했다.

천정궁 박물관에는 참아버님의 10대 유학시절을 비롯해 이후 선교사 파송과 정식 종교법인 허가를 받는 과정, 원리해설과 원리강론 초판본, 참아버님의 일본방문과 참어머님의 일본전역 순회 강연노정 등 일본섭리의 주요 사건과 행적을 알 수 있는 120여 점의 전시품이 전시됐다.

또한 1965년 참아버님의 첫 일본순회 당시 착용하신 의복을 비롯해 세계 순회 성지결정시 사용하신 성염, 성지에서 담아온 흙, 지도자간 나누는 서신, 구보키 오사미 회장 축복 후 참어머님께서 하사하신 ‘일본지정 충효지원(日本之情 忠孝之源)’ 휘호 등 6개부로 나눠 전시됐다.

전시물 중에는 2002년 참어머님께서 일본순회를 떠나시는 참어머님께 참아버님의 분신과 같은 의미로 주신 지갑 등을 비롯해, 1994년 11월 20일 일본 여성지도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참어머님께서 구리중앙수련원 대강당 칠판에 쓰신 ‘16만명 완성 만세(十六萬名 完成 萬歲)’ 휘호와 사인이 그대로 보존된 채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천정궁 박물관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특히 일본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일본 8대 성지 택정 및 기타 하사휘호와 주요행사 강연문 등 60여 점의 소장품이 함께 전시되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한편, 전시관 관계자는 ‘일본섭리와 참부모님 발자취’ 기획전시관 맞은편 참부모님 유품전 전시관은 천일국 원년 기원절 이후 지금까지 상설 전시되어 있는데, 이번 에 약 40%의 유품이 교체되어 새롭게 단장됐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기획홍보국>



1. 생애업적 전시회(청심평화월드센터)를 관람하시는 참부모님
2~3. 천정궁 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하시는 참부모님

4. 천지인참부모님 생애 업적 전시회 개막식 기념촬영 장면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무도축전'

창설 이후 40개국에 뿌리내린 무도연합, 창시자 애천·애인·애국정신 이어가



1. 무도시범을 참관하며 격려해 주시는 참여어머님
 2. 꽃다발을 봉정 받으시는 참여어머님
 3~4. 제2부 무도시범 장면
 5.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무도축전 후 가진 단체 기념촬영

(사)세계평화무도연합(이하 무도연합) 주최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무도축전이 천력 7월 12일(양 8.25) 오전 10시 30분, 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참여어머님 무도시범 참관, 격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참여어머님께서는 직접 축복가정 2세·3세 무도인들의 시범과 축하공연을 참관하시고 격려해주셨다. 참여어머님께서 입장하시자 전체 참석자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참부모님을 환영하고 모셨다. 참여어머님께서는 전체 경배를 받으신 뒤, 무도인 2세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봉정 받으시고 무대에 마련된 좌석에 좌정하시어 제2부 무도시범을 관람하셨다.

참부모님의 위대한 삶과 정신을 기리고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상속받을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이날 축전에는 세계평화여성연합 문연아 세계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박인섭 세계부회장을 비롯하여 섭리기관장과 주요지도자, 80여 명의 무도인, 제1기 글로벌 탐진수련생, 천

주평화사관생도, 식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문권진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무도축전은 광복 70주년과 천주성화 3주년을 동시에 맞는 뜻 깊은 2015년 8월을 맞아 3년의 시묘정성을 끝내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축전이다.”라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평화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환태평양시대와 심정문화세계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심신을 단련시켜 몸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며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전하며 “참부모님의 사상과 정신을 전파하며 무도를 통해 평화세계 실현에 기여하는 미래지도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유경석 한국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문선명 총재께서는 1997년 무도연합 창설대회에서 본연의 몸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고, 더불어 정신을 수양하여 마음과 몸의 통일을 추구하는 참된 무도의 길을 걸을 것을 당부하셨다.”고 전하며 현재 40여 개국에 기반을 갖춘 무도연합의 역사를 언급한

뒤 “심신 단련과 바른 인격을 겸비한 무도인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새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화합과 통일의 21세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기성 원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Vision 2020 승리와 지상 천일국 실제화를 기필코 이뤄드릴 수 있는 하늘의 용사, 통일무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재세시에 통일무도의 이름 지으시고 축복하신 가운데 애천·애인·애국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단련용진’하여 ‘충효지도 만승지원’의 뜻을 높이 살려 참부모님의 참사랑의 권세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무도를 통한 평화통일 실현의 뜻

이날 행사는 문평래 무도연합 회장의 사회로 기념식과 무도시범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 경배, 천일국가 제창, 이기성 천주청평수련원장의 보고기도, 헌화 및 묵념, 문권진 무도연합 이사장의 기념사(석일징 무도연합 부회장 대독), 유경석 가정연합 한국회장의 격려사(이현영 가정연합 부회장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기념식이 끝나고 참부모님이 좌정하신 가운데 제2부 무도시범의 막이 올랐다. 먼저 축복가정 2세·3세팀이 대련 및 상황극을 재현했다. 다음으로 참사랑평화학교 팀이 황인춘 교장을 중심으로 시범을 보였다. 세 번째로 천주평화사관학교 4명의 사관생도들이 봉술로 절도 있고 용맹한 모습을 선보였다. 이어 일본 천부보은고(天父報恩鼓) 팀이 참부모님을 향한 충효의 의지를 담아 문효진님의 곡인 ‘출세하라’에 맞춰 특별공연을 했다. 다섯 번째로 선정·선화 형제유학원팀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신출님을 중심으로 한 상황극에는 어둠을 뚫고 나아가 참부모님의 희망이 되겠다는 축복자녀들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도연합 시범들이 원리적 내용인 사위기대와 수수작용을 소재로 부드러운 원형운동과 강한 직선운동이 조화를 이루어 통일무도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전체 참석자들이 일어나 참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사랑해 당신을’을 합창한 뒤, 김동우 천주평화사관학교 교장의 선창으로 억만세 사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함으로 마무리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경기북부교구 구리교회 김영기 식구는 “3만 쌍 축복 23주년 기념일에 막내아들이 참사랑평화학교팀으로 참가했다. 이런 뜻 깊은 무도축전 행사에 참부모님께 충효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와 영광으로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기사제공: 세계평화무도연합>



‘PEACE ROAD 2015’, 세계 120개국 종주완료 기념식 광화문에서 열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염원, 120개국 3만km 93일간 종주, 30만여 명의 세계인 동참



1. 평화통일기원 퍼포먼스
2.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유경석 천주성화 3주년 실행위원장



3. 환영사를 하고 있는 손병호 피스로드 한국실행위원장



4. 피스로드 세계종주단 기념촬영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전 세계인이 함께 달렸던 ‘피스로드 (Peace Road) 2015’ 프로젝트의 120개국 종주 완료 기념식이 천력 7월 14일(양 8.27) 오전 11시 각계 지도자, 120개국 참가자,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개최됐다.

피스로드 세계대장정은 ‘피스로드 2015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시민자문단체인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관인 천주평화연합(UFP)이 주관하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세계시민 평화의 주역이 되게 만든 실천의 장

지난 천력 4월 13일(양 5.30) 출발한 피스로드 종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부터 중동-유럽 루트, 그리고 칠레 산티아고로부터 중미-북미-일본 루트를 거쳐 마지막 종착지인 한반도까지 93일간의 통일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대장정은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120개국 30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3만km의 거리를 걷기를 포함 자전거,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쉽 없이 종주하여 서울에 도착한 것이다.

문선진 피스로드 조직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안준석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피스로드 2015는 각 국가의 지도자들과 세계인들에게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 대한 열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인 스스로가 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실천의 장이 되었다.”고 피스로드 프로젝트의 성과를 밝혔다.

유경석 천주성화 3주년 조직위원회 실행위원장 환영사를 통해 “지구촌 평화시대를 열고자 피스로드 프로젝트에 동참한 세계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제평화고속도로’라는 평화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여 지구촌 한 가족의 이상을 구현해 가자.”고 독려했다.

손병호 피스로드 한국실행위원장은 “재외동포들과 세계시민들이 함께 한반도 통일과 DMZ 세계평화공원 실현에 대한 염원을 안고 120개국에서 종주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협조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함께 동참해 준 세계 참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본 식에는 각 대륙의 실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감발표를 통해 대륙별 피스로드 행사 개최에 대한 공유의 장을 갖기도 하였다. 특히 세계 120개국 참가자들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DMZ 철책선 커팅’ 퍼포먼스와 함께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통일을 기원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프로젝트

피스로드 프로젝트는 1981년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문선명 총재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국제평화하이웨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연결함으로써 세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 지구촌 평화시대를 열자는 뜻을 담고 있다.

2013년 ‘한·일 3,800km 평화의 자전거 통일대장정’으로 출발한 피스로드에는 2014년 1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피스로드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으로 함께 아프리카 33개국, 중동2개국, 유럽 30개국, 아시아 19개국, 남미 11개국, 중미 14개국, 북미 3개국, 오세아니아 8개국 등 총 120개국에서 각 국가별로 걷기, 자전거, 자동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는 전 세계적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러시아에서 1만2천km 자동차 대륙 횡단을 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항으로 건너 온 자동차, 그리고 일본 열도 1만5천km 자전거 종주 후 시모노세키 항에서 부산으로 건너 온 자전거에 피스로드 깃발을 앞세우고 세계 각 대륙별 대표 참가자들과 함께 천력 7월 8일부터 14일까지(양 8.21~27) 7일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1천km에 걸쳐 자전거 국토종주를 전개했다.

〈기사제공: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2015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피스로드 세계 종주단 환영식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려

‘2015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천력 7월 14일(양 8.27) ‘피스로드 2015 세계 120개국 종주완료 기념식 후 각계 지도자와 세계 종주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미래포럼과 (사)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공동주관한 국제심포지엄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93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피스로드 2015’ 세계 종주단을 환영하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여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기획, 진행됐다.

피스로드, 한반도 통일 실현에 큰 힘 될 것

국제심포지엄은 1부 세계 종주단 환영식과 2부 심포지엄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환영식에서는 피스로드 2015 세계대장정 영상 상영 후에 양천다문화합창단, 제일 평화통일 한국부인회 합창단, 사할린동포사물놀이팀 ‘하늘’, 글로벌 탐건의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세계종주단의 입장, 꽃다발 증정, 소감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통일미래포럼」 공동대표인 조명철 국회의원과 피스로드 한국실행위원장 손병호 회장(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환영사, 황교안 국무총리 축전 및 홍용표(통일부)·유일호(국토교통부)·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사문 소개, 크라프추크(Kravchuk)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국회의원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심포지엄은 각 대륙의 대표가 나와 ‘피스로드를 통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증진’이란 주제로 피스로드 실행 내용보고와 더불어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피스로드 종주완료와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하며 “120개국의 세계인들과 함께 온 국민의 통일 염원이 모여져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통일미래포럼」의 공동대표인 조명철 국회의원은 환

영사를 통해 “올해 우리는 분단 70년을 맞았다. 이제 더 이상 통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에 120개국 세계인들이 함께 한반도 통일의 깃발을 달고 국제적으로 추진한 피스로드 프로젝트는 우리 민족의 통일 실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라며 환영의 말씀을 전했다.

손병호 한국실행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후원과 행정자치부의 특별지원으로 피스로드행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힌 뒤, “한일해저터널과 베링해협터널의 비전이 실현되어 머지않아 꿈의 피스로드를 달리는 날이 올 것이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통일의 그날까지 피스로드를 계속될 것이다.”라며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운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세계 실현의 초석

크라프추크(Kravchuk)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0개국에서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세계속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피스로드 프로젝트는 평화세계 구현을 향한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다. 나 또한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축사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PEACE ROAD 2015’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120개국에서 함께한 이번 행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이 곧 세계 평화의 초석임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가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의지에 더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대장정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



1. 환영사를 하고 있는 손병호 피스로드 한국실행위원장
2. 축사를 하고 있는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초대 대통령
3. 환영사를 하고 있는 조명철 국회의원

4. 피스로드 세계 종주단 환영식 장면
5. 인사말씀을 하고 있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6. 국제 심포지엄 전경

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의 주호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미국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대륙 및 국가의 피스로드 대표들은 ‘피스로드를 통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증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5분씩 주제발표를 했으며 북미, 중미, 남미,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북, 아시아, 중화권, 오세아니아, 일본, 한국 등의 순서로 발표했다. <기사제공: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열려

‘문선명 선생의 평화·통일운동과 비전’ 주제로, 6개국 35개 대학 57명 교수 참여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천력 7월 11일 (양 8.24) ‘문선명 선생의 평화·통일운동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세계적인 평화학자인 노르웨이 요한 갈통 박사를 비롯하여 6개국 35개 대학에서 57명의 교수가 참여해 참아버님의 평화사상과 운동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

참부모님의 평화사상과 운동 학문적으로 조명

이날 행사는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선문대학교 문선명연구원, 통일사상연구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문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안준석 가정연합 세계부회장, 최윤기 통일그룹 재단 이사장,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 손대오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국제 지도자, 학자, 학생들이 참석했다.

황선조 총장은 대회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문선명 선생의 사상과 비전을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대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대오 이사장은 “문선명 선생의 평화를 위한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실현하시려는 공의로운 노정이었다.”며 존경의 마음을 전한 뒤, “금번 행사를 계기로 문선명 선생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바란다.”며 환영의 인사를 대신했다.

요한 갈통 박사는 ‘한반도 미래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면 통일보다는 상호 대화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 6자 회담을 통한 주변 4대 강국 평화정착, 한·중·일 간 과거사 청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갈통 박사는 천주성화 3주년을 맞은 참아버님에 대해 “국제하이웨이 등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문선명 선생의 성화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개 분과 발표와 토론, 한반도평화 분과에 관심 집중

이날 국제학술 대회에서는 학술사상, 종교평화, 한반도평화, 세계평화, 사회운동, 미래평화, 가정평화, 문화예술, 평화학 등 9개 분과로 나누어 학자



1.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요한 갈통 박사
2. 대회사를 하고 있는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
3. 환영사를 하고 있는 손대오 이사장
4. 폐회사를 하고 있는 이재영 문선명연구원 원장
5. 천주성화 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전경
6.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7. 국제학술대회 후 가진 기념촬영

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남북간 군사적 대치와 갈등 고조로 인해 한반도 평화 분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한반도평화 분과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평화로운 통일, 문선명 선생의 꿈과 실천’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남북한은 광복 70주년을 군사적 대결과 반목으로 지내고 말았다. 한반도의 평화는 실종되었고 통일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이때 문선명 총재의 생애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 뒤,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정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통일방안을 수립하는 데 문선명 선생의 통일방안에 대한 원칙은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오기성 경인고대 교수는 문선명 선생의 통일에 대한 노력을 조명했다. 이어 김학성 충남대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세계평화 분과에서 오영달 충남대 교수는 ‘현 유엔의 한계와 대안적 평화유엔’이라는 제목으로 참부모님께서 제창하신 평화유엔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고, 홍정표 미야자키국제대 교수는 ‘문선명 선생의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사상’을, 이신욱 동아대 교수는 소련의 종말과 이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 문선명·고르바초프 회담을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조명했

다. 발표에 이어 홍기준 경희대 교수, 최춘흠 상해외국어대 교수, 우평균 한양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종교평화 분과에서 김도공 원광대 교수는 ‘후천개벽사상의 해석과 이해-통일교의 평화론과 관련하여’를 발표하였으며, 이창익 한림대 교수는 ‘선포’를 중심한 문선명 선생의 섭리전개에 대해 언급하며 ‘말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통일개념과 상상의 종교정치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끝으로 김항제 신종교학회 회장은 ‘문선명·한학자 선생의 영세 평화사상과 종교평화운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운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교수, 고건호 교수, 안연희 선문대 교수가 논평했다.

학술사상 분과에서는 진성배 통일사상연구원 원장의 ‘귀납·연역 모델과 통일사상의 보편적 정초’, 셀로버 청심신학대학원 교수의 ‘문선명 선생의 절대 가치의 중요성’, 루이스 박사(Unification News Press, 미국)와 한철희 선문대 교수의 ‘성간여행의 이중적 특성과 신과학’ 등이 발표됐다. 다소 일반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술적인 개념에 대해 최정창 브리지포트대 교수와 황진수 청심신학대학원 교수, 안도 숲이치 선문대 교수가 논평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전적 논의를 이어갔다. (9면에서 계속)

요한 갈통 박사와 평화학에 대해 논의

오후 3시 50분부터 진행된 2부 분과토론에서는 사회운동, 미래평화, 가정 평화, 문화예술, 평화학 등 5개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가장 주목을 받은 평화학 분과에서는 이재봉 원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발표 없이 요한 갈통 박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재 상황을 공유한 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 정착에 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평화학 분과에 참석한 교수들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려면 남북한 신뢰구축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평화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청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학 분과에 참석한 김수민 선문대 교수는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갈통 박사도 시종일관 진지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변국들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고 말하였다.

사회운동 분과에서 NGO 연구의 최고 연구자로 꼽히는 박상필 한일장신대 교수는 ‘통일교회의 평화운동의 현황과 의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통일교회의 NGO활동이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이 발전적으로 계승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및 NGO 이론에 대한 학습의 확대, 종교적 다원성에 기초한 초종교적 화합, 창의적인 운동방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원재 테네시주립대 교수는 ‘정치학적으로 본 통일사상과 그 운동의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문선명 선생은 하나의 종교적 분파로 사회 속에서 머물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지지를 받는 세계적인 조직을 갖춘 운동을 펼쳐왔

다. 이러한 원동력은 통일사상의 이상과 추구하는 바가 조직 자체의 이익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슬람 신자인 라마 부장(말라야대, 말레이시아) 교수는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여성운동에 대한 학문적 조명’에서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선견지명에 의해 창설된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이타적 헌신과 지원 속에 세계적인 NGO로 성장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대해 배한동(경북대), 엄상윤(세종연구소), 조희원 경희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다양한 영역의 평화운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 이어져

미래평화분과에서 관동리(연변대, 중국) 교수는 차아버님께서 제안하신 국제하이웨이 구상에 대해 발표했고, 고경민 제주대 교수가 ‘해양을 통한 평화-문선명 선생의 해양관과 해양식량자원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의 논문을 공유했다. 이어 황상석 전남대 교수는 문선명 선생의 경제평화운동에 대해 ‘블루오션전략으로 본 문선명 선생의 경제평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현경 동아대 교수, 임상철 상지대 교수, 한중수 단국대 교수의 논평에 이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가정평화분과에서는 국제축복결혼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오규영 선문대 교수는 국제축복결혼을 한 가정의 평화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야노 다카요시 세종대 교수는 국제축복결혼을 한 가정의 2세 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지충남 전남대 교수는 다문화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국제축복결혼의 이상(理想)에 대해 평가했다. 이선미 전남대 교수, 남부현 선문대 교수, 이용승 대구대 교수의 논평으로 분과토론이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분과에서 나형민 경희대 교수는 미술을 중심으로 문선명 선생의 심정예술세계론을 정리하였으며,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언론을 통한 평화 실현운동에 대해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사명-워싱턴 타임스와 세계일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재일 선문대 교수는 ‘문선명 선생의 교육사상과 생애의 재조명’을 주제로 참부모님의 교육론을 소개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박양중 선문대 교수, 전희락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임현진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논평하였다.

차아버님의 평화운동에 대한 이해 넓히는 계기 마련

분과발표를 마친 후 이재영 선문대 부총장 겸 문선명연구원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문선명 선생의 평화-통일운동의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발표와 토론을 해준 57명의 교수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문선명 선생을 종교지도자로만 알고 학문의 장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만큼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한영애 경희대 교수는 “문선명 선생이 평화운동을 펼치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오한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운동을 실천하신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발표와 논평을 위해 참석한 교수들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문선명 선생의 자서전과 말씀집 등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으며 평화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선문대학교 문선명연구원〉



제1분과 발표자와 토론자들



제3분과 토론 전경



제5분과 토론 전경



제7분과 토론 전경



제2분과 토론 전경



제4분과 토론 전경



제6분과 토론 전경



제9분과 발표자와 토론자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종교기자 간담회

9개 주요 일간지 종교담당 기자 참석,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장면



뉴스시 기자와의 인터뷰 장면



천주성화 3주년 종교기자 간담회 전경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종교기자 간담회가 지난 천력 7월 12일(양 8.25)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 9개 주요 일간지 종교담당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유경석 회장, 천주성화 3주년의 의미와 기념행사 브리핑

천주성화 3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인 유경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은 간담회에서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3주년을 맞는 올해는 탈상의 의미를 갖으며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소생·장성·완성이라는 의미로 귀결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참아버님 천주성화 기념행사는 대륙별, 국가별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들은 시종 진지하게 유경석 회장의 브리핑을 경청하고 준비된 보도 자료를 참조하며,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를 놓고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물었다. 특히, 기자들은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과 전 세계 120개국에 참여한 '피스로드 2015' 세계대장정에 대해 비중 있게 질문했다.

유경석 회장은 "선학평화상은 참사랑과 공생·공영·공의주의 철학, 초종교·초국가·초민족적 사상을 바탕으로 범세계적인 평화운동을 펼치신 문선명 총재의 생애업적을 기리며 그 숭고한 뜻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문 총재님의 영부인이신 한학자 총재의 제안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힌 뒤, 수상자 선정과정과 수상자들의 선정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스로드는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 주창하신 국제평화고속도로를

함축해 표현한 말이다.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연결함으로써 인종과 종교, 국가를 넘어 세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 지구촌 평화시대를 열자는 뜻을 담고 있다."며 피스로드의 비전에 대해 설명한 뒤, '피스로드 2015' 세계대장정의 기획배경, 목적, 진행과정, 성과 등을 공유했다.

참부모님의 생애업적 증거, 가정연합 미래비전 공유

유경석 회장은 '문선명 총재님의 성화 후 3년간 가정연합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연합은 한학자 총재의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화합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 194개 선교국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협력하며 총재 양위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정연합은 신령과 진리의 기반 위에 3대 혁신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국민종교로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며 과거에 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회장은 '문선명 총재가 남기신 말씀을 책으로 펴낸 것이 1000여 권에 달하는데, 한 총재님께서 이를 집대성해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등 세권의 경전을 편찬했다. 또한 경전을 중심으로 종교 헌법을 제정해 세계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천주성화 3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는 '평화로 세상을 연결하자'는 주제로 국경, 인종, 문화, 종교, 이념의 벽을 넘어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천력 7월 15일(양 8.27) 미국 라스베이거스, 아프리카 희망봉, 칠레 산티아고에서 출발한 '피스로드 2015' 세계 120개국 종주 완료식이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다음 날에는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이 열려 키리바시의 아노테 통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두구 비제이 굽타 박사에게 첫 선학평화상이 수여된다고 전했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은 천력 7월 17일(양 8.30) 오전 9시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해외 전·현직 국가수반 및 국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해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천주성화 3주년을 앞두고 유경석 회장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참부모님의 생애와 업적을 증거하고 가정연합의 미래비전을 전하기 위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뉴스시, 주간경향, 월간중앙 등 주요 언론매체들과 인터뷰했다. (기사제공: 기획홍보국)



한국종교협의회, 천주성화 3주년 기념 '종교지도자 친선축구대회' 개최



종교 평화와 화합 위해, 5개 종단 8개팀 참여... 대종교팀 우승

한국종교협의회(이하 종협)는 천력 7월 9일(양 8.22) 경기도 하남시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5개 종단 8개 팀이 함께하는 '다종교 공동체를 위한 종교지도자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을 기념하고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대회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불교태고종, 대한천리교, 대종교,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등 5개 종단의 최고 종교지도자를 비롯해 각 종단의 선수와 응원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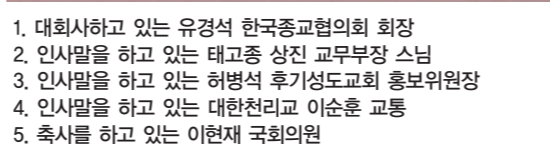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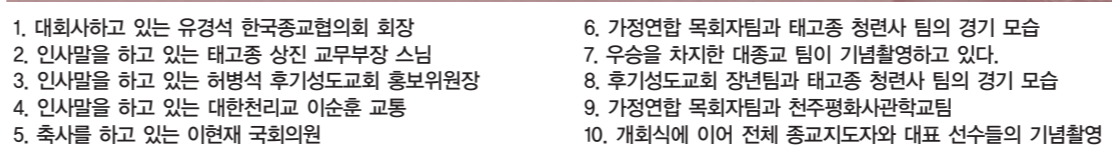
종교평화와 공동번영 위한 발걸음

유경석 종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모인 것은 축구를 통해 서로 맘을 흘리며 달리다보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는 평화의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며 "이 대회가 성숙된 종교문화와 평화세계 실현에 기여하는 자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 회장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상호 협력하며 뜻을 모아 참석해준 모든 종단의 고귀한 의지와 실천은 한국 종교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격려했다.

이어 태고종 청련사 주지 백우 스님은 교무부장 상진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오늘의 축구대회가 가진 그 가치는 매우 크다."며 "여기에 모인 분들의 종교는 다르지만 축구를 통해 평화를 사랑하고 귀한 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는 지구촌의 한 형제와 같다."고 전했다.

대한천리교 이순훈 교통은 "종교의 독특성을 상대에게 지나치게 강조할 때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 그 뿌리가 하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 뒤, "오늘 축구라는 소통의 매개체를 통해 서로 화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



1. 대회사하고 있는 유경석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2. 인사말을 하고 있는 태고종 상진 교무부장 상진 스님
3. 인사말을 하고 있는 허병석 후기성도교회 홍보위원장
4. 인사말을 하고 있는 대한천리교 이순훈 교통
5. 축사를 하고 있는 이현재 국회의원
6. 가정연합 목회자팀과 태고종 청련사 팀의 경기 모습
7. 우승을 차지한 대종교 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8. 후기성도교회 장년팀과 태고종 청련사 팀의 경기 모습
9. 가정연합 목회자팀과 천주평화사관학교팀
10. 개회식에 이어 전체 종교지도자와 대표 선수들의 기념촬영

란다."고 말했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허병석 한국교회 홍보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이웃종교 간의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평화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대종교 원영진 사교는 이창구 남북교류협력팀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종교인들 간의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아름다운 우리 사회가 이뤄질 것이다. 함께 소통하는 하루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하남시)은 "한국과 같은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종교 간의 협조체

제 풍토가 조성되지 않은 한국의 종교문화 현실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대표 지도자들이 함께 한 것은 무척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교범 하남시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행사가 하남에서 열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행사를 주최한 한국종교협의회와 참여한 모든 종단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스포츠 교류 통한 다종교·다문화 축제

특히 이날 대회에는 전북 순창군종교인협의회 연합팀이 참여해 더욱 큰 화제를 모았다. 순창연합팀은 불교,

유교, 천주교, 원불교, 가정연합 등이 가입된 종교협의체로 종단 간 대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순창향교 강병문 전 전교는 "순창종교인협의회와 같은 협의체가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며 "등근 공을 통해 만들어진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각 종단을 대표하는 성직자와 지도자들로 구성된 8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대종교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은 '태고종 청련사'와 '가정연합 목회자' 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장년'과 '순창종교연합', '대한천리교'와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청년', '대종교'와 '가정연합 천주평화사관학교' 팀이 각각 맞붙었다.

열띤 경기를 펼친 가운데 친선축구대회의 우승은 대종교팀이 차지했고, 3~4위전 경기에서는 순창연합팀이 가정연합 목회자팀을 이겨 3위에 올랐다. 또 번의회의 경기로 1~4위전에 나서지 못한 팀들은 단체 줄넘기를 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와 관련하여 종협 권인진 사무총장은 "종교지도자 친선축구대회를 계기로 스포츠를 넘어 음악, 춤, 음식 등 다양한 분야까지 함께 화합하고 이해하며 나누는 다종교·다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종협은 그동안 종교평화문화축제, 종교인 체육대회, 종단 방문 및 교류, 성지순례, 학술세미나, 남북통일운동, 해외봉사활동 등 종교평화와 화합을 위한 범종교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종교지도자 친선축구대회'는 2012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해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기사제공: 한국종교협의회〉

천주성화 3주년 기념주간, 천운 상속받은 축복의 은사 총만

유종영·강정자 가정과 정재훈·강숙희 가정 430쌍 축복완료, 상반기 4,000여 쌍 축복가정 배출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천운 상속의 축복은사가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에 충만하다. 천력 7월 6일부터 13일까지(양 8.19~26) 본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북, 충남, 대전, 대구, 강원, 인천, 전남, 해양, 울산, 제주 등 15개 교구에서 축복식이 거행됐다. 이번 주간 축복행사를 끝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2015년 상반기 4,000여 쌍의 축복가정을 배출했다.

축복식 참석, 생애 최고의 영광

'2016 천지인참부모 천주축복식(이하 축복식)'이 천력 7월 9일(양 8.22) 참부모님을 대신하여 유경석 회장 내외가 집례하고 300여 쌍의 기성·독신가정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교구 천복궁교회 3층 대성전에서 거행됐다. 금번 축복식은 본부교구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서울남부교구가 공동주관했다.

유경석 회장은 예식사를 통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고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사로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참부모님을 통해 축복을 받은 인류는 원죄를 청산하고 혈통전환하며 영육 아울러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참사랑의 전통을 지켜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축복식에 참석한 천복궁교회 공중중·이재금 가정은 "축복식 참석을 생애 최고의 영광이라 생각한다. 가정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예식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천력 7월 9일(양 8.22)에 개최된 대전교구 기성축복식에는 125쌍의 기성·독신가정들이 참석했다. 대전교구는 이승일 교구장의 리더십 아래 교구 소속 전체 교회들이 2~3차례씩 축복설명회를 진행한 터 위에 논산교회와 금산교회 축복식을 포함하여 금번 축복식까지 총 222쌍의 축복가정을 배출했다. 특히, 이날 축복식에서 가정연합, 기독교, 불교, 도교의 성직자들은 종교 화합을 염원하며 초종교 합수식을 거행했으며, 이어 각 종교의 의식에 따라 신랑·신부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축원해 주었다.

천운의 운세를 상속받기 위한 전남교구 기성축복식이 천력 7월 7일(양 8.20) 110여 쌍이 참석한 가운데 송정섭 전남교구장 내외의 집례 하에 담양 축협 4층 예식장에서 은혜롭게 진행됐다. 이날 축복식에서

박철홍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문선명 총재께서는 국제축복결혼을 통해 한국 다문화사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다."며 "축복에 담긴 귀한 은사를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훈·강숙희 가정 430쌍 축복 완료

천력 7월 13일(양 8.26) 태풍 고니가 지나간 뒤, 맑고 화창한 햇살이 여수의 하루를 열었다. 하늘의 은총 속에서 참사랑·참생명·참혈통으로 거듭나는 해양교구 기성축복식이 유경석 회장 내외가 집전하고 227쌍의 기성·독신가정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디오션리조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축복식을 통해 해양교구 정재훈·강숙희 가정(기성, 6000가정)은 430쌍 축복을 완료했다. 정재훈 가정은 참여머님께서 축복하신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를 결의한 이래 지난 6월부터 40일 동안 매일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축복설명회를 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천력 7월 9일(양 8.22) 하늘의 운세권을 상속받기 위한 기성축복의 뜨거운 열기는 충북교구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인식 교구장은 예식사에서 성경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일화를 소개하며 "인간의 눈으로 거듭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늘 중생과 부활의 의식인 축복식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참사랑으로 참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교구 축복식이 천력 7월 6일(양 8.19) 120여 쌍의 기성·독신가정을 비롯해 하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양구 KCP호텔에서 은혜롭게 진행됐다. 황보근 교구장은 예식사에서 "가정은 교육의 장소이자 인격형성의 공간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복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땅굴 견학을 한 뒤, 북녘 땅을 바라보며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를 올렸다.

구리교회 배기석·김미경 가정은 "친동생이 구리에서 목회를 하고 2대째 장로교 신앙을 해온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통일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 뒤, "축복식 참석을 계기로 문선명 총재를 하늘이 내리셨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1. 성혼문답을 하고 있는 유경석 회장 내외
2. 대전교구 축복식 중 진행된 초종교합수식 장면
3. 해양교구 축복식 후 가진 단체기념촬영
4. 천복궁교회에서 개최된 축복식 전경
5. 참사랑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인천교구 축복식 참석자들



천주성화 3주년 기념사업, 환경변화에 지구촌 적극적 공동대응 해야



1. 개회사를 하고 있는 차준영 세계일보 사장
2.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3. 축사를 하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4. 2015 세계기후환경포럼 전경
5. 기념촬영하고 있는 각계의 전문가와 귀빈들

세계일보 주관 '2015 세계기후환경포럼'이 천력 7월 14일(양 8.27) 오후 3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차준영 세계일보 사장, 양수길 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김대경(57)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문위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현영 한국부회장, 윤순진 서울대교수, 조용성 고려대학교수를 비롯하여 내외귀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일보 창립자이신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로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환경문제 해결의 지혜를 나누고자 기획, 진행됐다.

'기후환경 변화와 지속가능성: 진단과 해법' 주제

차준영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이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뒤, "기후환경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몇몇 단체나 국가만 관심을 기울일 일이 아니라 전 지구촌이 대응에 나서야 할 어젠다"라며 "이번 포럼이 기후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북미의 야생꿀벌과 콜롬비아강 유역의 연어가 기온상승에 제대로 적응치 못해 대량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서 "북극곰, 꿀벌 그리고 연어가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인간만 홀로 번성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도 기후변화를 위한 윤리적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오늘 포럼에서 (다뤄질) 기후변화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해법을 토대로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문제로서 기후변화 장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수길 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후환경 변화와 지속가능성: 진단과 해법'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제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투명한 논의의 틀이 설정돼야 하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배출 감축 협력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후방예측 방식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수립 기법으로 도입해 궁극적 목표 달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으로 인해 인류의 위기 극복 지혜 모아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기후환경 과학이 말하는 지구촌의 미래'라는 발표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기후변화와 영향을 분석했다. 권 회장은 "기후변화의 원인규명에 관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평가보고서를 보면 인간의 인위적인 영향이 20세기 중반 이후 관측된 온난화의 주된 원인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대경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문위원은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효율 혁명'이라는 발표문에서 "과거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기계를 교체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끊임없이 효율이 진화하는 '스마트 그리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전력망이다.

이날 세미나는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주제발표 후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와 고려대학교 식품경제학과 조용성 교수가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세계일보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창립자 문선명 총재의 비전과 철학에 기초해 인류가 맞고 있는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2014 세계식량·산림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 '2015 세계기후환경포럼'을 열었다. 

(기사제공: 세계일보)

제1회 기적소리 뮤직 페스티벌, 가정연합과 한국CARP 공동주최로 열려

천주성화 3주년 기념, 참부모님의 심정과 문효진님 실천적 효의 삶 상속의 장



1. 1등상과 인기상을 차지한 청심밴드의 공연모습
2. 축사를 하고 있는 유경석 가정연합 한국회장
3. 격려사를 하고 있는 권인성 월드CARP 회장
4. 환영사를 하고 있는 문상필 한국CARP 회장



천주성화 3주년 기념 우리 노래 창작 경연대회인 '제1회 기적소리 뮤직 페스티벌'이 천력 7월 9일(양 8.2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과 한국대학원리연구회(이하 한국CARP) 공동주최로 10개의 본선팀이 참가하고 가정연합과 한국CARP의 공직자, 식구, CARP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구 청파동 소재 한국CARP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참부모님의 심정과 문효진님의 실천적 효의 삶을 상속받고, 실제 천일국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문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문훈숙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 유경석 가정연합 한국회장, 권인성 월드CARP 회장, 문평래 세계평화무도연합 회장, 문상필 한국CARP 회장, 이현영 가정연합 한국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심정문화 중심한 창작과 나눔의 축제

유경석 회장은 축사에서 "지금은 문화혁명시대다. 우리는 참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심정문화의 전통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참가팀이 준비한 우리 노래들을 통해 참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참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문화·나눔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 "이 행사는 CARP의 작은 움직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통일가의 심정문화 발전사에 한 장을 장식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시는 참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화동하고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인성 월드CARP 회장은 격려사에서 "통일가에 있어서 큰 희망은 CARP

다. 이 모든 것이 참부모님을 위한 것임을 느끼고 창조적인 심정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CARP 문상필 회장은 환영사에서 "참아버님께서는 직접 성가를 작사·작곡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노래에 담아 나누셨다."고 밝힌 뒤, "우리가 외치고 부르는 노래들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하늘의 뜻 앞에 선 청년학생들이 Vision 2020 승리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결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연합, 유니버설문화재단, 통일그룹, 일화, 용평리조트, 청심, MK기획, 애원 등 섭리기관과 기업체들이 이날 행사를 후원했다. 또한 한국CARP 문상필 회장, 사카다 교수, 이연옥 천복궁 찬양단 지휘자, 최형석 MK기획 대표(문효진 뮤직 페스티벌 준비위원장), 오상진 송파 교회장, 서인국 북미대륙본부 사무국장 등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청심밴드의 '淸心' 영예 1위, 참가곡 음원화 보급 예정

이날 경연에는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공연을 진행했고 이어 축하공연과 심사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PURE(합천교회)의 '축복을 받아요', 하태우 원자 외 1명의 '우리들의 심정이 서린 노래', 기원전의 '이젠 크게 웃을래', 천복궁 청년대학찬양팀의 '영원한 믿음', N분의 1(강원 CARP)의 '우리가' 등이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문대 동아리 재생이 '통일진군가'와 '기적소리' 등 두 곡을 준비해 축하공연을 했다.

사카다 교수는 1부 전체 심사평에서 "소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

물이다. 참사랑이 표현되고 이를 공감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무대에 오른 팀들은 기술적으로 미숙하지만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문효진님에 대한 그리움 등 감동이 담겨 있었다."며 참가팀들의 정성과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2부 경연에는 울산교회 참하늘소리찬양단의 '시간을 찾아서', 고패밀리의 '오직 참부모님', 기흥서 식구의 '심정의 인연', 청심밴드의 '淸心', 희밴드의 '우리들이 행복한 세상' 등이 무대에 올랐다. 경연 후에는 중앙학생회 문화팀 '신명'이 축하공연을 했다.

오상진 송파교회장은 "이 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심정문화 전통의 상속과 더불어 현재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심정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문효진님이 개척한 심정문화의 토대 위에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날을 고대한다."는 소망을 밝힌 뒤, 2부 각 팀에 대한 심사평을 전했다.

'제1회 기적소리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치열한 경합 끝에 청심밴드의 '淸心', N분의 1의 '우리家', 고패밀리의 '오직 참부모님' 등이 각각 1등·2등·3등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팀들에게는 격려상이 수여됐다. 1등을 차지한 청심밴드는 문연아 여성연합 세계회장으로부터 상과 상금을 수여받았으며, 더불어 인기상도 함께 수상했다.

청심밴드의 '淸心'은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모두가 참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창작곡이다. 한국CARP는 이날 참가한 10팀이 작사·작곡한 모든 곡을 음원화하여 배포할 예정이고 새로 개정할 '우리노래책'에도 수록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한국CARP>